

디아스포라와 국가정책*

-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와 차이니스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전 병 국**
(건국대학교)

1. 들어가며

급속하게 글로벌화와 로컬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변적인 디아스포라의 이동·이주는 국가와 민족의 지역적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사상적 테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테두리는 문화적 변동과 인종적 혼성을 함유하며 권력 분쟁을 비롯한 인종 갈등, 빈부 격차, 소외와 차별을 동반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테두리의 확장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디아스포라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신들만의 문화·사회·정치 공학적 시각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는 그들 대부분이 역동하고 확장 중인 사상적 테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 민족, 인종이라는 틀에서 디아스포라들을 정의하고 개념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틀 속에서 정책을 진행시키고 결과물로 불평등하고 불완전하며, 어색한 동질화만을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상적 테두리를 확대시키고 있는 디아스포라 문제들에 대해서,

* 본 논문은 2009년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 재단의 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62-B00009).

** 건국대학교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HK연구교수.

그리고 문제 해결의 핵심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쓰였다. 물론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관련된 연구는 학계를 통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훌륭한 성과물들 또한 만들어내고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그리고 이와 연관성을 지닌 국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은 첫째로 러시아 디아스포라와 차이니스 디아스포라²⁾의 정의 및 분류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국가 정책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러시아 및 중국이라는 거주 국가와 디아스포라의 상호 관계성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명은 결코 양국가의 디아스포라 정책을 비교하여 상호간 우열을 들어내고자 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오히려 각각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의 및 정책들을 병렬함으로써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다양한 모습을 주시해보고자 하였다. 둘째로 양국가의 디아스포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디아스포라 정책 변동이 디아스포라 정체성 변화의 능동적 요인들 중 하나이며, 디아스포라 정체성 연구의 기초적 조사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디아스포라가 이동해옴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은 변화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며, 집행함으로써 디아스포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상호간의 영향은 새로운 사상적 테두리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및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생성 원인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 정부의 대 디아스포라 정책은 디아스포라들에게 ‘차이’를

-
- 1) 국제 문제 조사 연구소, 『해외 한민족의 현재와 미래: 해외 동포의 생활 실태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다나, 1996. 문명식, 「연해주의 문화 인류학과 한·러 관계: 여러 민족간의 관계와 한·러 경제 협력」, 『평화연구』, 2004. 반병률, 「러시아 한인(고려인)사회와 정체성의 변화」, 『한국사연구』, 140, 2008. 서규환, 이완중, 「사회주의와 민족문제」, 『슬라브연구 23-1』, 2007.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집문당, 1998. 전신욱,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제이주 요인과 정착현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3, 2007. 조정남, 「중국의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2000. p. 3. 최대희, 「소비에트 민족 정책과 스탈린의 민족 문제 해결」, 『인문과학』 16, 2003. 최수현, 「현대 중국 교민정책에 대한 소고」, 『중국학논총』 16, 2003.
 - 2) 본 연구에서는 ‘재외 중국인’ 과 ‘재외 러시아인’에 대한 명칭을 학계, 각국정부의 총칭 그리고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모두 ‘차이니스 디아스포라’와 ‘러시아 디아스포라’로 통일하되, ‘슬라브계 러시아 디아스포라’로 기입하는 경우 슬라브 인종 개념이 포함됨을 들어내고자 한다.

유발시키고 있다. 이 차이들이 만들어내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변이는 현대 디아스포라연구의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줄 것이며, 현대 디아스포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다.

II. 본문

1. 디아스포라의 정의와 분류

종교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민족의 한부분이 민족 밖으로, 혹은 민족과 국가 테두리 밖으로 떨어져 나가, 다른 곳에 정착한다는 뜻이다. 이 민족 혹은 국가의 한부분에는 개인, 단체, 집단 모두가 포함된다. 그리고 현재 확장되어 민족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민족 그룹과 그들의 후예,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화를 총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지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첫째로 모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경험이며, 둘째로 모국에 대한 공통적인 기억과 신화, 셋째로 거주국 사회에서 경험한 차별과 이에 따른 집단 의식 그리고 모국으로의 회귀성이다. 결국 이 모든 것에는 모국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모국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 고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한 뿌리 의식과 종속개념’에서 ‘분리와 독립 정체성’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대 디아스포라의 형태는 다양하다. 민족과 동떨어진, 이와 동시에 국가 밖으로의 이주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만 광의의 의미로 확장하여 디아스포라 개념을 사용 시에는 단일 민족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타민족 공동체도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 이를테면 러시아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추바쉬인, 부르야트인, 타타르인 등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중국의 티벳족, 조선족등도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 더불어 자신의 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과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도 디아스포라로 분류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써 집시집단이 있다. 또한 특별한 경우로 유대인과 아르메니아인의 경우처럼 디아스포라가 모국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³⁾

코헨은 디아스포라를 박해·도피형, 제국·식민형, 노동·상업형, 그리고 문화적 디아스포라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디아스포라들이 모국을 떠나게 된 원인에 따른 분류였다. 강요된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박해·도피형은 차별과 가장 근접하는 유형이며,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는 무관하게 집단적으로 경험한 비극적 사건, 전쟁이나 인종박해, 자연재해 등으로 진행 되는· 이주로 설명하고 있다. 제국·식민 유형은 제국주의적 헤게모니 아래 형성된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에서 발생한 이주와 이동을 통칭하여 사용한다. 노동·상업형 디아스포라 유형은 대부분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거나, 상인이 상거래를 목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문화적 유형은 문화와 교육, 학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디아스포라를 일컫는다. 이런 측면에서 소련의 붕괴이후 발생한 구소련국가에서 러시아로의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이주를 박해·도피형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개방·개혁 이후의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의 해외이주를 노동·상업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⁴⁾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인 디아스포라의 유형분류로는 다양한 원인으로 출현하고 있는 디아스포라를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 및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를 설명하기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1-1.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정의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러시아 사회에서 유동적 상태라는 것이다. 러시아 국회 두마와 러시아 행정부는 통상적으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재외동포’ 혹은 ‘재외 러시아인’으로 보고 있지만, 시대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따라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러시아인’에 대한 정의를 달리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러시아인’에 해당되는 러시아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루스끼’로서 인종적인 러시아인, 즉 러시아공화국에 거주하는 동슬라브족의 일족으로써 언어, 역사 및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또 다

3) 임채완 · 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06. pp.31-33.

4) 위의 책, pp.35-36.

른 하나는 ‘로시아인’으로서 러시아 공화국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 이는 인종적 러시아인들뿐만이 아닌 러시아 공화국 내부에서 살고 있는 모든 소수민족들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 공화국내 소수민족인 타타르인이나 고려인까지도 ‘러시아’인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 명칭들을 국가 러시아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국가적 이익에 따라서, 주관적 구분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의미에 국민(러시아연방)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필요에 따라 인종적(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⁵⁾)의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러시아인’의 의미를 국민개념으로 사용 시 현재 구소련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1천 7백만 명에 달하며, 인종적 개념(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으로 사용 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1천 1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러시아 국민개념으로써 사용하며, 인종적으로 사용 시에는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로 달리 표기하여 혼선을 막고자 한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분류할 때 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시기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시기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첫 번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종교적인 탄압에 의한 러시아정교 구교도의 재외이주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이주는 1667년 종교회의로부터 20세기 초까지이며 특히 1880년대 말 미국으로의 본격적인 이주가 대표적이다. 구교도들은 대부분 1930년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고 탄광과 공장에서 일하였다. 이주는 1905년 러시아가 종교의 자유화를 선포하면서 끝이 났고, 이때부터 오히려 러시아로의 회귀현상이 발생하였다. 두 번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출현은 1917년부터 1922년에 걸쳐 일어난, 적군과 백군의 전쟁에 의한 해외이주로, 적군에 패전한 백군의 이주를 말한다. 이때 발생한 디아스포라는 내전의 패퇴로 결국 국경을 넘어서, 해외로 도피한 형태라는 점에서 난민적 성격의 디아스포라라고

5)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는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혈통적으로 슬라브 민족으로서, 슬라브 민족 고유의 역사·문화 인식을 공유하며 국적으로는 1991년 이전 소련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들이며, 현재 러시아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혹은 독립국가 연합(CIS) 국가들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로 한정한다. 특히 혼혈인 경우 여권 발행 시 본인의 의사에 따른 민족 란에 슬라브 민족으로 기입한 자들로 한정한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디아스포라들은 유럽으로 이주한 백군이었고, 대략 2백만 명에 달하였으며, 다수의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폴란드, 독일,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로 이주하였고, 파리와 베를린은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중심 역할을 하였다. 세 번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포로가 된 소련군인과 독일 파시스트에 협력한 소련인들로써 전쟁이 끝난 이후 소련으로 귀환하지 않고, 타국으로 이주한 이들이다. 전쟁포로가 된 소련인들은 국내 송환 시 국가를 배반한 밀고자라는 누명이 씌워져 혹독한 비판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전쟁포로들이 유럽에 남게 되었다. 후에 이들은 미국, 캐나다, 남아메리카까지 이주해갔다. 즉 세계 2차 대전은 세 번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탄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이때 탄생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들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일반인까지 약 5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네 번째 디아스포라는 1991년 소련 붕괴를 원인으로 출현하였다. 이들은 실질적인 이주가 아닌 국경의 변화에 의한 ‘디아스포라화 현상’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과 거주국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이 원인이 되어 구소련국가에서 러시아로의 재이주를 택한 모두를 포함한다.⁶⁾ 이시기는 러시아 내에서는 기존의 민족정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출현과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의 시발점이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략 이때 생성된 디아스포라의 수는 약 1천 7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그 분류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슬라브 혈통성 그리고 민족적인 뿌리의 식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다. 이 기준에 따라서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와 비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라고 나눈다.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인종적으로 슬라브인이며, 슬라브 문화 정체성, 공통의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 러시아의 떨어져있는 한 영역임을 자임하는 자와 그 후손, 그리고 그들의 단체라고 규정한다. 이 시각아래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거주 비율에 따라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첫 번째 그룹은 슬라브계 러시아인 비율이 높은 그룹으로 카자흐스탄, 라트비

6) 김영술, 「러시아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차별과 귀환이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p. 66-80.

아, 에스토니아이다. 두 번째 그룹은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이 여기에 속하며, 세 번째 그룹은 나머지 모든 나라가 포함된다.⁷⁾

두 번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분류 기준으로는 ‘러시아어’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와 비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구분 짓는 것이다.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구소련 영토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개인과 공동체만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로 보는 시각이다. 언어의 역할 특히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통일된 요소로서 러시아어를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0만 명의 구소련 사람들이 1997년에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로 인정받아 러시아 시민권을 받고 러시아연방의 시민이 되었다.⁸⁾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구소련 영토에 거주하며,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공동체’라는 카테고리만으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범주가 정해진다면, 공동의 민족적인 뿌리와 정신적인 가치, 그리고 혈통이라는 측면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도 광의적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법률과 정책을 통하여 분류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정부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정책들을 발표하였고, 정책의 실행을 위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대통령 직속실, 행정부, 중앙의회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책 원칙과 방향성을 규정하는 일련의 법적 문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분류 기준으로 이들 정책의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로 규정한다. 즉 법률적으로 공식화된 자료를 통해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범위를 규정 하는 것이다.⁹⁾

7) 위의 책 p.22.

8) 위의 책 p.24.

9) 러시아 동포에 관한 최초의 규정은 1999년 연방 두마에서 입법한 “재외동포에 대한 러시아 연방 국가정책에 관한 법률”로써 재외동포를 “외국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로 언어, 종교, 문화유산, 전통 및 관습을 공유하는 자와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재외 동포에 관한 현재의 근거는 2002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재외동포의 지원 개념’으로써, 러시아연방은 러시아 국가의 발전 속에서 디아스포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디아스포라와 그 조직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러시아 정부가

1-2. 차이니즈 디아스포라

대략 3천4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차이니즈 디아스포라는 현재 세계 각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의 이주는 재외 중국인 사회 성립 이전, 화교(華僑)라고 명명되는 시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당인(唐人), 화인(華人) 그리고 한인(漢人) 등으로 불리었으며, 영국과의 아편전쟁 이후로 화공(華工), 화상(華商)등으로 불리었다. 특히 아편전쟁 이후로 화공, 화상으로 불린 이유는 그들의 이주 목적과 관련이 깊다.

중국은 현재 이들에 대해서 명칭을 통해 구분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명칭은 국적법과 관련이 깊다. 전체 차이니즈 디아스포라의 85%를 육박하고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 거주국의 법적 국민이 된 차이니즈 디아스포라를 화인으로 부르며, 중국 국적을 유지하며 타국에 살고 있는 차이니즈 디아스포라와 그 후손들을 화교라 칭한다. 이들은 현재 300만 명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외에도 화족(華族), 화인디아스포라(華人 diaspora), 귀교(歸僑) 등의 명칭이 있다.

먼저 시기적으로 차이니즈 디아스포라를 구분한다면, 첫 번째 차이니즈 디아스포라를 12세기 남송시대로부터 시작하여 16세기 후반까지의 약 4-5백년 간 해외이주 인해 발생한 디아스포라로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동남아로 이주를 하였으면 대략 1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발생 원인으로는 선박 건조 기술의 발달과 나침반과 같은 항해 기술의 개발로 중국 남부 해안지방을 통한 대외무역이 급격히 성장하였고, 이에 따른 중국 상인들의 해외이주였다. 두 번째 차이니즈 디아스포라는 16세기 후반부터 1840년 아편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약 300년 기간에 발생한 디아스포라를 일컫는다. 이때 차이니즈 디아스포라가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일본, 조선,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러시아

지원하는 목적은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는 외국에서의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정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 외국과 상호 호환적 관계를 수립하는데 것과 이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게 교육, 문화, 언어, 사회적 경제적 사안의 영역에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영술,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차별과 귀환이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재인용.

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대략적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의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가 재외이주를 떠나게 되었다. 세 번째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는 1840년 아편전쟁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까지 109년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디아스포라이다. 이시기에 본격적인 ‘화공’ 들의 이주가 진행되었으며 더불어 해외로 진출한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들이 현지에서 굳건한 정치,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때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들의 수가 천만 명에 이르렀고, 그들의 활동 범위 또한 아시아에서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 대서양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들이 세계적 확산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중국은 계속적인 전쟁, 그로인한 피폐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중국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네 번째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출범 194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디아스포라를 지칭하며, 특히 197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많은 수의 인구가 이주하였고, 동남아의 중국계 인구도 타 지역으로 재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대규모의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의 이주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대략적으로 160만 명에서 18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¹⁰⁾

다음으로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를 명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화교(華僑)로 분류 할 수 있다. 화교 명칭의 출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논들은 1978년 청조의 주미 사신이었던 천란빈의 상소에 19세기 말까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화민. 화인. 화공 등의 명칭과는 다른 교민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것 그리고 1883년 정관응이 이홍장에게 보낸 보고서에 화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것과 더불어 1898년 일본 요코하마에 화교학교가 설립되면서 화교의 이름이 최초로 출현하였다는 등등의 주장들이 있다.¹¹⁾ 현재 중국정부는 화교에 대해서 중국국적을 가지고 재외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중국인 모두에 대한 총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 화교는 중국이외의 국가에서, 중국국적을 가지고 동시

10) 조정남, 「중국의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2000. pp.34-35.

11) 무동화, 『화교사개요』, 중국화교출판사, 1994, p7.

12) 김경국, 최승현, 이강복, 최지현, 「중국 海外移民의 諸 名稱 분석 연구」, 『중국인문

에 거주국의 영주권을 소유한 자로써 외교관이나 유학하는 자들은 화교로써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일 화교가 거주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중국국적은 자동 소멸되며 그들은 화교가 아닌 화인으로 분류된다. 화교는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의 모든 명칭 중에서 중국과 가장 법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관계가 밀접하다.

두 번째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에 대한 명칭 분류는 화인(華人)이다.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재외교민정책은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기준으로 화교와 화인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었다.¹³⁾ 화교가 정치·법률적 속성을 중시한다면, 화인은 민족·인종적 속성에 의미를 둔다. 화인이란 중국혈통을 가지고 있고, 거주지의 국적을 취득한 자들로써 중국국적은 상실한 자들이다. 이들은 법률·정치적 신분으로는 중국이 아닌 현지 거주국의 국민이다. 다만 이들의 신분은 현지 거주국의 국민이지만, 민족적·문화적·정서적으로는 중국적 경향을 함유한 자들이다.

세 번째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에 대한 명칭 분류는 화족(華族)이다. 화족이란 소수민족으로서의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의 약칭이며, 화인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면, 화족은 거주 국가와의 관계, 곧 거주 국가와 민족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족”임을 강조한다.¹⁴⁾ 화족은 민족적·문화적·정서적으로 중국적 경향보다는 현지의 경향을 가지는데, 특히 스스로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중국적 요소마저도 거주지의 다양한 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개념은 마치 중국 안의 조선족이라는 개념과 일치하는데, 조선족은 스스로를 이미 한민족의 일부분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식하고 있고, 화족 또한 스스로 중화민족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거주국가의 소수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명칭 분류는 화인 디아스포라(華人裔群)이다. 중국의 재외이민을 해석하는 가장 앞선 개념이기는 하지만, 현재 이 명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학자들도 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유대인과 종교를 떠올리게 하고,

과학』, 2005. pp.228-224

13) 위의 책, pp.224-226

14) 위의 책, pp.228-230

현지에 융화되기 보다는 독립적 집단의 이미지 때문에 중국 재외이민 집단에 명칭을 사용할 경우 거주국에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중국의 재외이민사회가 부각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화인 디아스포라는 화교, 화인, 화족이라는 명칭이 법률·정치·정서적 정체성을 토대로 구분된 것과 비교하여, 이들 가운데 공동분모가 있다고 보고 이 공동분모를 매개로 디아스포라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모두를 묶는 개념이다.¹⁵⁾

2. 디아스포라 정책

2-1. 러시아의 디아스포라 정책

1991년 소련 붕괴 후 독립국가연합(CIS)의 탄생은 약 2천 5백 70만 명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를 출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¹⁶⁾ 이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소련의 붕괴 초기 그들 스스로를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소련 시절부터 독립국가 연합으로 변화된 지금까지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심정적으로 여전히 대조국이라는 존재 속에서 자신들이 인식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¹⁷⁾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국가간 경계가 확고해지고, 모국과 거주국 양쪽 모두에게서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약 2천 5백 70만 명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중에는 약 1천 6백 60십만 명의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¹⁸⁾가 포함

15) 위의 책, pp.230-231

16) 러시아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8백70만 명 이상의 이주자를 받아들였다. 그중에 65%(5백 60만 명 이상)가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국가 연합(CIS)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1천7백만 정도이며, 이중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1천 1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Константин Затулин, Русскийвопрос как вледствие распада империн 2010. www.rustrana.ru.

17) Зайончковская ж. А. Русский вопрос // Миграция. 1996. №1. С. 7-14.

18)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는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혈통적으로 슬라브민족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소련 붕괴 전 연방국가 내에서 사회적, 문화적 특권을 그리고 정치적 우위를 향유하였던 계층이었지만, 소련 붕괴 후 가장 급속도로 그들의 특권을 잃어버린 계층이다. 이들에 대한 문제는 현재 그 심각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러시안 디아스포라 문제는 현재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뿐만이 아닌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게도 다양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 내에서 진행 중인, 민족주의 부상은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러시아 국내 이주 및 타국가로의 이주에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들 상호간에 존재하는 각자의 디아스포라 수는 세계 디아스포라 수에서 차이니즈 디아스포라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이후 러시아 정부의 대 러시아 디아스포라 정책은 큰 틀에서 과거 소련의 민족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소련의 민족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민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였지만, 진행과정을 통해서 본 실제적 모습은 대러시아주의에 기초한 중앙 집권적 대국주의였고, 이것은 러시아 정부에게도 계승되어, 현재 러시아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책은 같은 혈통적, 민족적 경험을 보유한 슬라브계 러시아 디아스포라에게 조차, 차별과 차이를 강요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모국으로의 귀환, 이주 그리고 거주 등이 복잡하게 서로 얽히면서 국가 통합의 실제적 현황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들에 대한 정책 방안은 결국 국가 러시아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 디아스포라 정책은 크게 3시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 번째 시기가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이때 시행된 대표적인 러시아의 디아스포라 정책이 재외국민들에 대한 국적법 정리 정책이다. 1991년에 발표된 ‘러시아 시민법’에 따르면 구소련의 시민으로서 러시아 연방의 영토에 거주하며 1년 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서, 슬라브민족 고유의 역사·문화 인식을 공유하며 국적으로는 1991년 이전 소련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들이며, 현재 러시아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혹은 독립국가 연합(CIS) 국가들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로 한정한다. 특히 혼혈인 경우 여권 발행 시 본인의 의사에 따른 민족 란에 슬라브 민족으로 기입한 자들로 한정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 본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것은 러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는 구소련 시민의 자연스러운 러시아 시민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러시아로 귀환 후 1년이 경과하면, 아무런 조치 없이도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993년에 개정된 ‘러시아 시민법’에서는 소비에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는 자신의 거주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3년 이내에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러시아로의 이주 방법 이외에도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러나 2001년까지 추진된 국가정책들은 적극성을 띠기보다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초기 국가정책들이 소련에서 러시아로의 국가 변화에 따른 일반 국민의 국적법 정리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일반 국민의 국적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도 그들의 선택을 최우선시하였고, 러시아로의 귀환이나,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거주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선택적 강요도 하지 않았다. 초기정책은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능동성을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큰 의미로 다가서지 못했다. 이는 소련붕괴 초기 아직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 내에서 민족주의가 성장하기에는 이른 시점으로 타민족에 대한 탄압이 시작 전이었고, 이미 오랜 기간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들이 현 거주 지역에서 경제적, 정치적 상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버리고 러시아로의 이주, 혹은 러시아 국적 획득을 위한 현거주지 시민권을 버리는 선택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사상 속에는 소련 붕괴 이후에도 심정적으로 대조국이라는 관념이 내재 되어있었고, 이후에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 내에서 불어 닥칠 차별과 탄압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두 번째 시기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이때 시행된 대표적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정책은 이주제한 정책이다. 러시아 정부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슬라브계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모든 소수민족들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범주에 포함시켜 영향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2000년 이후 독립국가연합(CIS)국가에서 민족주의가 심화되면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수백만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들이 러시아로 동시에 귀환하고자 하였고, 러시아 정부는 이것을 용납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들이 각국에 남아서 거주국과 모국과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랐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이주제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2001년에 시행된 이주제한 정책에 대해서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들의 현지화 정책과 시민법 개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현지화정책을 살펴본다면 러시아 정부의 디아스포라 정책은 러시아로의 대량 이주를 억제하면서 현거주지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그 중심을 둔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들에게 거주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CIS)국가 내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합이 필요함을 인식시키면서, 적지 않은 다양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조직을 만들어내었고, 그중에 몇 개는 다른 국가에까지 확장하였다. 전략적인 방향은 새로운 독립국가에서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삶과 러시아 문화 독창성을 보호하며, 거주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과 디아스포라의 통합을 돕는 현지화 정책에 무게를 두었다. 다음으로 시민법 개정을 통한 이주제한 정책을 살펴본다면, 2001년부터 구소련 여권의 소지자들이 단순한 등록 절차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이전의 단순화된 시스템이 폐기되고, 대신에 일련의 복잡한 서류들과 ‘거주허가’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2000년 푸틴 대통령의 포고령에 의거하였으며,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 내 거주자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훨씬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¹⁹⁾ 또한 2002년에 개정된 시민법에 의하면 러시아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5년간 거주해야 하고 러시아어를 유창히 하여야 하며, 합법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들에게도 특별한 우선권을 주지 않았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구소련 국민으로서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았으며, 과거소련 국적의 국민들 모두가 러시아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푸틴 정부는 독립국가연합(CIS) 국가거주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들을 잠정적인 러시아 국민으로 간주하던 정책을 더 이상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들

19) 우평균,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러시아의 인식, 정책과 이론적 측면」, 『한국정치학보』 38-3, 2002, p. 396.

을 러시아로 유입하려는 정책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주 희망자들이 이미 대부분 러시아에 정착해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러시아 국경 통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범죄나 테러와 연관된 이들이 러시아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였다.²⁰⁾

세 번째 시기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이며, 대표적인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정책은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이주 정책이다. 이 정책은 러시아의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사회적 요인과 관계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 경제를 인구학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러시아의 노동시장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기업들의 6.3%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2009년에는 이 비율이 18.8%로 증가하였다.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매년 6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고용되고 있지만, 그들의 일터는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보수가 적은 사업장들로서,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대다수가 불법노동자로 알려져 있다.²¹⁾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인구 감소문제 또한 심각한데, 러시아 인구밀도는 극히 낮아서 1km²당 인구가 9명이 채 안 되는 실정이다. 전체 인구수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50년이 되면 러시아 인구는 현재의 40% 수준인 9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인구 중에서 노동가능연령인구는 현재의 60%에서 47%로 감소되며,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에서 4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인구감소 및 노동력 부족문제는 이주자의 유입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²²⁾ 2006년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자발적인 이주의 지원에 따른 국가 프로그램(이하 국가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 이는 러시아 경제 발전의 요건인 노동력 확보 필요성 때문에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들의 자발적인 이주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국가프로그램은 러시아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노동할 수 있는 나이를 포함하여, 전체 인구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러시아

20) 김인성, 「구소련 지역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민족연구』 32, 2007, p.107-108.

21) 김인성, 「러시아연방의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30, 2007, p.190.

22) 위의 책, pp.191-192.

현실을 위한 전략적인 것이다. 현재 독립국가연합(CIS)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민족주의는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차별과 탄압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모국으로의 귀환을 부추 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재 모국 러시아는 그동안의 이주제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슬라브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러시아 귀환을 추진하고 있다.

2-2. 중국의 디아스포라 정책

197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중국인의 해외이주는 과거의 이동·이주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투자와 무역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학 후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이민형태의 이주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에 경제력도 갖추고 있고, 이주 대상국들도 선진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현재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그들을 신화교로 부르고 있다. 특히 홍콩이 귀환되면서 시작된 이주와 동남아 중국계 인구의 재 이민 현상이 합쳐지면서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급속한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의 성장 및 이동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러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중국 최초의 디아스포라정책은 1909년에 시행된 부계혈통을 근간으로 제정된 ‘국적법’이며, 중국이외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인과 그 후예들을 화교라고 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화교의 개념과 지위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1984년부터 시행된 ‘국적법’은 중국국적을 가지고 중국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화교, 중국인이지만 거주국 국적을 보유한 화인, 그리고 귀국하여 중국에서 거주하는 귀교로 분리하여, 유형별로 체계화하였다.²³⁾

중국의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 정책은 이처럼 유형별로 구별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한데, 첫 번째 화교·화인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은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들이 거주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확고한 국민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후 중화민족으로써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각국 차이나이즈

23) 조정남, 「중국의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2000. p.3.

디아스포라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거주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²⁴⁾ 중국은 화교·화인 정책을 이 사상 위에 진행시키고 있으며 ‘현지화’와 ‘중화의식 승계’라는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화교·화인의 현지화 원칙은 ‘단일 국적’ 정책과 거주국에서의 ‘정치활동 금지’ 정책에 적용된다. 중국은 화교·화인들에게 1909년 청조의 국적법, 1914년 북양정부의 국적법, 1929년의 국민당 정부의 국적법을 통하여 ‘부계 형통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시 해외거주 중국계 대부분이 중국 국적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재외에서 태어난 화교·화인들의 자녀들 대부분을 이중국적자로 만들었으며, 이중 국적 문제가 화교·화인들의 현지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거주국으로의 국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화교·화인들이 거주국에서 장기간 생활을 하고, 경제·사회적 위치를 굳고히 하고 있지만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현지화에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²⁵⁾

또 하나의 원칙인 ‘중화의식의 승계’는 중화의식을 통한 모든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의 결속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거주국에서 민족 교육기관을 발전시켜 중화의식과 중화문화의 고취에 집중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거주국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 교육내용은 거주국의 특수한 환경을 철저히 고려하여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²⁶⁾

두 번째 개혁·개방기 이후 귀교 정책으로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책 특징을 살펴보면 잘못된 귀교정책의 반성과 이들에 대한 수용 및 보호로 규정지을 수 있다. 과거 중국은 귀교들이 가지고 있는 재외와의 관계성 때문에,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범죄자로까지 매도하였고, 문화혁명시기에

24) 김경국, 최승현, 이강복, 최지현, 「중국 海外移民의 諸 名稱 분석 연구」, 『중국인문 과학』, 2005, p. 228.

25) 위의 책, pp. 272-273.

26) 위의 책, pp. 280-281.

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8년 ‘귀교들에 대한 원칙’을 통하여 귀교들에 대한 매도 및 차별 정책은 철폐되었다. 이 원칙에 귀교들은 중국내 중국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²⁷⁾ 개혁·개방기 중국의 귀교정책의 변화는 귀교들의 사회주의 건설에 동참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화된 것이었다.

III. 나아가며

오늘날 ‘이동’과 ‘이주’는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부각 되고 있으며,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서 탐구되어야 할 사상적 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동, 이주, 망명, 이민 그리고 차별과 변용을 포괄하는 개념 디아스포라는 모국과 거주국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보면, 모두에게 특수한 존재이다. 이들의 정체성은 이미 지역적 테두리를 뛰어넘고 있다. 즉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그동안 사용되었던 지역적 테두리의 공간 개념을 벗어나 사상 영역으로 확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 개념을 아직도 지역적 테두리에 한정하여, ‘차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동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전 세계 각국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자국 본위적 사상은 디아스포라를 모국에 도움을 주는 도구 역할 정도로만 인식시키고 있으며, 디아스포라 문제에 대해서는 혼란과 값싼 동정주의만을 양산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결코 모국 발전만을 위한 도구일 수 없으며, 혹 도구로써 그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미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디아스포라와 모국 간에 벌어진 ‘차이’가 ‘차별’로 변질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적, 환경적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할 때, ‘차이’가 곧 ‘공생’으로 전환되는 열쇠가 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디아스포라 정책은 국가의 단기적 이익에 따라 유동적

27) 위위 책, pp. 282.

으로 변동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인 디아스포라는 이러한 모국의 이기주의와 더불어 거주국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삶을 겪고 있다.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이 지금처럼 디아스포라에 대한 문제를 방관 내지 소외한다면, 정치적·경제적 발전의 저하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확대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중국 국적을 소유한 화교, 거주국의 국적을 소유한 화인, 그리고 귀국하여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교로 구분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유형별 정책은 뚜렷한 장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 정책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강하고, 급속하게 확장되어가는 디아스포라 형성원인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사회·문화적, 그리고 경제·정치학적 환경은 다르다. 또한 디아스포라의 생성과 원인, 그리고 시간의 과정 또한 다르다. 그에 따라 러시아 및 중국 정부의 디아스포라 정책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 차이를 통해서 각 국가 디아스포라 정책의 우열을 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오히려 디아스포라 정체성 변이 요인의 다양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공간으로써의 지역이 해체되고, 사상과 담론의 지역으로 재구성되는 디아스포라의 시대를 맞이하여,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와 차이나이즈 디아스포라의 정의 및 분류 그리고 각 국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디아스포라 개념 확대 요인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임을 들어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미력하나마, 기초를 보태고자 하는 욕심에서 쓰였다. 채워가야 할 부분이 많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심층 될 연구 주제로 삼고자 하며, 계속적으로 진행될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국제 문제 조사 연구소, 『해외 한민족의 현재와 미래: 해외 동포의 생활 실태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다나, 1996.
- 김경국, 최승현, 이강복, 최지현, 「중국 海外移民의 諸 名稱 분석 연구」, 『중국인문과학』, 2005.
- 김인성, 「구소련 지역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민족연구』32, 2007.
- 김인성, 「러시아연방의 다문화주의」, 『민족연구』30, 2007.
- 김영술, 「러시아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차별과 귀환이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8.
- 무동화, 『화교사개요』, 중국화교출판사, 1994.
- 문명식, 「연해주의 문화 인류학과 한·러 관계: 여러 민족간의 관계와 한·러 경제 협력」, 『평화연구』, 2004.
- 반병률, 「러시아 한인(고려인)사회와 정체성의 변화」, 『한국사연구』140, 2008.
- 서규환, 이완중, 「사회주의와 민족문제」, 『슬라브연구』 23-1, 2007.
-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집문당, 1998.
- 우평균,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러시아의 인식, 정책과 이론적 측면」, 『한국정치학보』38-3, 2002.
- 임채완·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06.
- 조정남, 「중국의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2000.
- 전신욱,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요인과 정착현황」, 『한국정책과학학회보』11-3, 2007.
- 최대회, 「소비에트 민족 정책과 스탈린의 민족 문제 해결」, 『인문과학』16, 2003.
- 최승현, 「현대 중국 교민정책에 대한 소고」, 『중국학논총』16, 2003.
- Зайончковская ж. А. “Русский вопрос”, Миграция, 1996.

❖ ABSTRACT

Diaspora and National policy
- Focusing on Russian Diaspora and chinese Diaspora

Chun, Byung Kuk

In the modern society in which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proceed simultaneously, diversified and rapid migration of diaspora makes a new form of boundary off the frame of the state and the nation. This new border accompanies cultural change and racial mixture; retains ethnic conflict,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lienation and discrimination, as well as power conflict; and extends its influence. Nowadays, th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Korea face problem of Diaspora in numerous forms. And each country takes an approach to the problem of the diaspora in the aspects of their society, culture and political technology. This implies that most countries, without understanding the new form of border which is alive and dynamic, define and conceptualize the diaspora in the frame of one state and one nation to carry forward the policies accordingly, resulting in unequal, incomplete and awkward homogenization.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identity of the diaspora, the core for the problem solving. Of course, studies about the identity of the diaspora have been continued until today and many great outcomes have been achieved. Nevertheles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identity of the diaspora and the national policies which have a close interrelationship with it. It is because the study ultimately aimed to highligh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destination countries, Russia and China, and the diaspora, through the defini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Russian diaspora and Chinese diaspora and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policies about that. However, the intention was not to distinguish superiority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policies about the diaspora between two countries, but to focus on the diversity of the identity

of the diaspora through defining each different diaspora and paralleling the policies. Second, the reason for looking into the diaspora policies of these two countries is because it is judged the changes in the diaspora policies of each country is one of the active factors for the changes in the identify of the diaspora of each country and it is the basic research for the study on the identity of the diaspora. New migration of diaspora changes the identity of the state, and the state makes the policies and enforce the policies, resulting in the influence on the diaspora. This interaction acts as the growth factor for the new boundary.

The causes of Russian diaspora and Chinese diaspora show apparent 'differences'. In parallel with this, the policies about the diaspora in Russia and China arouse 'differences' to the diaspora. The variation of the identity of the diaspora made by these differences will suggest other viewpoints on the diaspora, and these viewpoints will become the found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of the diaspora in the present times.

Key words

디아스포라, 정책, 러시아인, 중국인, 국가

Diaspora, policy, Russian ,Chinese, a nation

논문접수일: 2012. 02. 10.

심사완료일: 2012. 02. 20.

게재확정일: 2012. 03. 16.